

제12대 총장에 閔丙天교수 선임

학교발전 위해 재단투자 보장

제 107회 이사회 제23대 총학과 구두 합의 봐

재단이사회(이사장=吳錫圖 스님)는 지난 22일 타워호텔에서 이사회를 갖고 제12대 총장에 閔丙天(정치외교학)교수를 선임함으로써 1년간의 총장선거 체제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총장선거는 李智冠 前 총장이 부정입학사건으로 사임한 후 90년 1월로의 임기만료로 앞두고 두차례의 총장선거 부산과 申國柱총장선거로 선임, 지난해 10월13일 교수회의 宋錫球(철학), 閔丙天(정치외교학) 총장후보선출로 이어지는 등 90년 1월로의 임기만료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 이번 1백7회 재단이사회의 총장선거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본 재단 한 관계자는 "20일 어느 정도 의견결정을 하던 중에 학생들의 면담요구로 중단되어 다음날인 21일 타워호텔에 모여 의견제정장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 재단이사회는 22일 오후 3시 11명의 이사가 참가한 가운데 타워호텔에 다시 모여

閔丙天교수를 이사선임 만장일치로 제12대 총장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일 본관 이사장실에서 열린 첫날 이사회는 추경예산심의, 인사재정등 8건의 안건을 오전중에 모두 심의하고 바로 오후부터 총장선임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학생 2백여명이 이사장실로 몰려가 이사장과 면담을 요청, 이때 鄭在哲총장회장등 일부 이사가 이사장실을 빠져나갔고 吳錫圖이사장, 正大, 光德, 道風, 彰經이사장과 사무처장등이 총학생회장 정우식(철학3)군등 학생대표 3인과 3차례에 걸친 면담을 갖고 이날 저녁 11시경 吳이사장을 비롯한 스님이사들은 학생들에게 재단이 포함하는 추진기구를 정례적으로 열어 학교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등을 직접 밝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학생측은 △재단 대표의 등록금협상기구참여 △재단총자산공개 △단과대 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재단투자 △병원건설가계정 및 재단전입금 공개 △식당직영화 등 각실시 △학생·학교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기구(가정·동국발전위원회)결성등 6개항에 대해 재단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吳이사장을 비롯한 한 이사들은 "기본적으로 해결수 있는 내용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만큼 서서히 풀어나가겠다"고 개선택지를 밝혔는데 학생회는 재단 학생간의 공식적인 의견창구를 열었다는데 재단혁신의 서곡을 울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이 자리에서 재단측은 등록금협상에 재단대표 참여없이 일방적인 조치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사회의 선임된 신임 閔총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1932년 경기도 출생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대통령직무지원본부장 △서울대 정치학석사·박사 △근로부 행정대학장·기획실장·경주부총장 역임.



△지난 20일 재단이사회가 열린 첫날 학생대표와 세차례의 면담이 끝난 뒤 吳이사장이 학생들에게 재단투자 확충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

교무처장 吳洪哲교수
학생처장 李敏雄교수
학교당국은 작년 12월27일자 학교당국에 이만용(농생과)교수를 발령하고, 지난달 11일에는 교무처장에 오홍석 사범대학장(지리교육학)을 겸임 발령했다.

학생 식당 직영화 요구 확산

'기만적 학교행정 분쇄와 식당직영화 쟁취를 위한 동약인 결의대회'가 지난 11일 오후 3시 학생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본관 중앙당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총학생회장 정우식(철학3)군은 이 자리에서 동부에 대한

후기 분할모집 실시치취

91학년도 후기 대입학력고사가 서울-경주 총43개학과 9백12명(서울 576명, 경주336명)정원에 3천9백2명이 지원, 4·27대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지난 1월22일 서울 동국관, 경주 원효관에서 각각 실시됐다.

학교가 이상을 가르치는 비인하수라면 생존경쟁의 현실세계는 온갖 비바람을 감내해야 하는 불편과 같다. 이번 졸업하는 우리 동국의 도반들은 온실에서 배운 이상을 현실속에서 실천하려는 반행자다운 셈이다.

현실을 보자. 문자 그대로 타락이다. 국회의원들이 뇌물 의욕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맑은 세상이 갑자기 흐려졌다. 벌이 아니라, 화려한 전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상한 시나리오로 쇼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수서지구 특별분양사건에서도 은폐성 쇼는 계속된다. 문제의 원

90학년도 학위수여식 거행 박사 40·석사 2백43명 배출

90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지난 25일 오전11시 吳錫圖이사장, 申國柱총장사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해관장에서 열렸다.

학사보고, 학위수여, 총장지시 이사장지시순으로 진행되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李智春(불교학)씨등 박사40명, 석사2백43명등 총 2천5백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번 졸업식에서 전체수석졸업은 45만점에 평점 4.33(1백58학점)을 얻은 정호식(아간학과 전산학과)군이, 전체차석은 평점 4.33(142학점)을 얻은 김봉완(신학)군이 각각 차지했으며, 단과별 수석졸업자는 다음과 같다.

△불교대=서해기(신학과, 4.11점) △문과대=박미란(영문과, 4.27점) △이과대=정정희(화학과, 4.22점) △법과대=채병봉(법학과, 4.00점) △사회대=정인봉(행정학과, 4.10점) △경상대=최영우(무역학과, 4.20점) △농과대=이규선(임학과, 3.97점) △농과대=위창욱(화

공과, 4.17점) △사범대=이아량(체과과, 4.23점) △예술대=안태상(연영과, 4.02점) △이부대=김수원(경제학과, 4.10점)

한편 경주캠퍼스 90학년도 학위수여식은 오늘(27일) 오전 11시 문무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1천5백55명에게 학사학위가 지역개발 대학원 수료자 27명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경주캠퍼스 졸업자 전체수석은 평점 4.5만점에 4.31점을 얻은 서은경(중문 4)양이, 차석은 4.28점을 얻은 성주원(철학 4)군이 각각 차지했다.

각 단과수석은 △인문대=윤병민(불교, 4.21점) △자연대=조병천(수과, 4.3점) △법정대=최영식(법학아간, 4.21점) △상경대=고미숙(무역, 4.11점) △한대의=최유정(한외, 3.98점) 등이다.

경주병원 개원 지연 운영비만 매달 3천만원

의과대학부속 경주병원은 작년 11월 자체집수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원이 계속 미뤄진 채 매달 3천만원의 운영비만 지출되고 있다.

오는 93년까지 3년동안 매년 28억6천만원씩을 우선건설에 지출해야 하는 경주병원은 현재 개원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재정상 3백백만원이 아닌 1백백만원 14개전과목을 기준으로 개원을 예정이다. 경주병원은

개원을 앞두고 작년8월에 국내 보육외화차관으로 기계시설 50% 이상을 들여왔으며, 나머지 50%는 개원과 동시에 시설인대식으로 들여올 계획이다.

또 개원시기는 재정등이 확보되지 않아 1학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포항병원측은 건축허가가 나와있는 상태로 경주병원개원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학기 휴학제 실시
신설이수과목 반드시 이수해야

한학기만 휴학하고 다음학기에 복학할 수 있는 '한학기 휴학제'가 올해부터 실시된다.

학생회의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 실시되는 한학기 휴학제의 주요 내용은 △휴학기간은 두학기 이하로 한학기 휴학을 신청할 경우 복학을 원할 경우 복학허가 △교과과정 이수에 지장있는 의

학제일학과 재한 △휴학기간중 신설된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국관련 휴학생, 재대학생 등 꼭 필요한 학생을 제외한 휴학·복학생은 교과과정, 학위수여식 시기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한학기 휴학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휴학신청서에 한학기 휴학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포항병원장 김중명교수

재단이사회는 지난해 12월18일 포항병원장 겸 경주병원 개원준비위원장인 김중명(전 경북대 의과대 교수)씨를 임명했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따사로웠던 동약의 품을 기억하십시오

만해선사의 열과 수많은 선배열사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남산 기슭에서의 대학생살이 세인의 축하속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회는 진리를 탐구하고 이념과 사상을 논했던 학창시절에 비해 때로는 스스로가 속물이 되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동국이라는 이름과 민중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그것 하나인 것입니다.

동대신문사

어른에게

수서비리 폐만참전 온국민이 분노한다

사설

재단은 민족동국의 권위를 찾으라

제12대 총재가 1991년 2월 22일 열린 제107회 재단이사회에서 선출됐다.

총장서리 해위 및 총장선임을 주관적으로 열린 이번 재단이사회는 총장서리체제 1년여만에 지난해 10월 교수회에서 선출한 宋錫鎔(宋錫鎔) 두 후보중 차점으로 선출된 宋錫鎔을 낙선했다.

이번에 총장으로 선출된 宋錫鎔의 선임 배경에는 관계·경제·학계의 활동등을 고려해 학교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속에서 선임된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으나 宋錫鎔이 국방대학원 조교수 출신이라는 점등으로 미루어 외압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추측은 비단 이번 총장선임 뿐만 아니라 산적해 있는 학교재정의 문제에서도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올해 8월로 잔여인기를 마감되는데 吳錫鎔이사장의 경우, 전이사장이 행사 처벌을 받으므로써 나머지 임기를 대신 수행하는 이사장이라는 나름대로의 안락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지난 85년도에 이사장을 역임했던 경험이 있는 까닭에 학교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학교발전이 이끌어 가지 못했다든 각 주체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마당에 총장선임을 둘러싼 승려이사들 간의 보이지 않는 암투까지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단-학교당국-교수-학생이 하나가 되어 학원의 자주와 발전을 위해 총재진해도 민족사학으로서의 제위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 상층기구인 재단에서 이처럼 허허실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학이 과연 어찌 필자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제23대 총학생회가 지난 20일 열렸던 이번 107회 재단이사회 첫날에 이사들과 사상 유례없는 대화를 갖고 이사장으로 부터 학교발전 위한 재단의 다짐을 확인받은 것은 획기적 일로 평가된다.

학교계의 정세로 설립된 우리대학이 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민족의 지난한 역사와 무관하지 않음을 적시해야겠다. 한겨울에도 피어나는 미화처럼 어떠한 어려운 노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재단은 각고의 노력을 다해 자주화된 신성한 학원의 권위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화염병 투척 형법적용은 적반하장

치안부분은 앞으로 파출소등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대학생들에게 그동안 적용해 오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화염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대신, 형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 말을 자세히 뜯어 보면서 경찰이 이상을 일으키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물론 최근에 있었던 두차례의 파출소에 대한 화염병 투척은 전대협임시의 강도 범행이 사건의 정황과 범행상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그 책임은 오히려 경찰당국 나아가서는 현정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경찰은 학생들이 아무리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하더라도 쿠퍼탄과 공권력으로 무산시켜왔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미명하에 실종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화염병의 투척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정당방위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함에도 오히려 한 수 더해 "학생운동권이 고립화되면서 약세가 만회하기 위해서 테러집단으로 변모했다" 등의 악선

하는 것을 보면 어찌구무가 없다. 더욱이 시위주동자들에게 〇〇파의 수괴라고 낙인을 찍겠다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해 질 수 밖에 없다.

경찰의 이번 방침은 법치정도에 있어서도 무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형법상 범죄단체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공권적이지 않고 정적으로 유지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집회 때 화염병을 투척하는 학생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는 우리로서는 상식밖의 일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그동안 경찰의 법치용 관행을 상기에 보면 쓴 웃음이 난다. 경찰이 지난해에 있었던 서진물살물 관련자와 서울지법 동부지원 앞 증인피살 사건의 보좌관 관련자등 심취동자도 알만한 폭력단체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것에 비추어 볼때, 이번 방침의 불순한 의도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빨리 철회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상식이 통하는 경찰상의 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운영이 오히려 화염병 투척에 대한 자그마한 대책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식당직영화, 우리몫 찾기일한 업자들 희유책에 속아선 안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식당을 이용해 주시는 1만 동학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식사로 여러분의 맛을 만족시키고 있는 저희 식당을 항상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많은 질책을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런 문구를 읽으신 1만 동학학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구내식당에서 어떤일이든 식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개구리 하품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학우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구내식당이란 곳의 실태에 대해 여러분은 얼

6공화국 최대의 부정부리 사건이라는 '수서비리 특별분양사건'이 한달여동안 나라진체를 뒤흔들고 있다. 91년에 들어서자마자 연이은 의원 뇌물유사사건, 대학입시부정 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터져나온 '수서사건'으로 인해 노태우정권은 집권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나든 6공화국의 정치적, 도덕적 명분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하게는 레임 덕(집권말기 권력누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92~3년 권력교체를 향한 91년 정치일정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파란과 제2의 경제개편을 포함한 국가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의회 선거의 연기가 갖는 정치적 의미도 그것이며, 이과정에서 계속 지연, 회피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악법개폐의 문제이다.

원래 악법개폐는 지난 1월 여·야 합당에 따라 5공화국 입시개혁을 둘러싸고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잇달은 부정부리 사건으로 인해 제도정정권이 기능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지난 입시개혁의 사안심도도 못한 채 폐회됨으로써 악법개폐문제는 실종되고 말았다. 6공화국 정권은 6공화국을 통해 악법개폐를 지면, 방 회피하는 또다른 6공 회악의 비리들

지피를 것이었다. 그러나 악법개폐문제가 또다시 지연, 방기되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6공화국 집권 3년동안 주요한 민주개혁의 과제로 제기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6공화국에서 악법개폐가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5공청산의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었던 88년, 89년이었다. 5공청산의 요구는 5공회악의 비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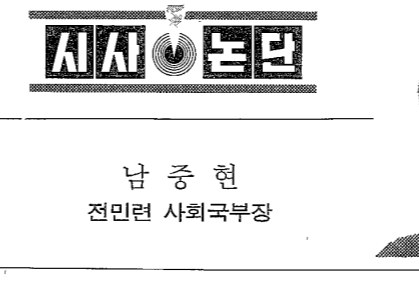
시대보다 두배가 넘는 구속자를 양산하는 등 악법치리는 전진이 아니라 후퇴의 길로 들어섰다. 뿐만 아니라 작은 민주당 합당 이후 노태우 정권은 내각제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 전략의 일환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국군조직법, 방송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써 6공정권은 개혁입법공약을 무색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거기에서 교육인

제도적인 민주개혁 없이는 양심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민간단체 관계자)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억압할 때 그동안의 정권이 걸었던 법은 노동법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헌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민중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어차피 구속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차라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길 바라고 있다. 악법은 법에서 고쳐지지 때문이다"(부산의 한 노동자)

"국가보안법 시대는 끝나야 한다. 현 정부도 7.7선언, 7.20선언으로 북한이 적이 아니라고 공언해왔다. 한국의 대통령이 소련 공산당 서기장관 악수를 하는 당부에 같은 민족인 북한이 어떻게 당부를 참정하는 반 국가단위 일수 있는가?"(통일운동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들이 시대의 추세와 민주주의 개혁의 흐름을 외면하고, 계속 유지될 때 이 사회의 법과 가치체계는 동요되고 파괴될 것이다. 온 국민의 지령에 직면할 것이다.



남 중현 전민권 사회국부장

6공비리에 희생되고 있는 '개혁입법'

중시대의 대표적인 악법이었던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악법, 병역법, 행정법 등이 그 주요대상이었다. 집시법 등 국회 일부의 미온적인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대로 방치되었다. 오히려 노동법의 경우는 개정되어있으며, 국가보안법의 경우 5공

법, 농발대법, 파병법 처벌법 등 악법을 양산 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전체 양심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천4백여명의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반드시 주장하는 것은 법

력과 국민에 대한 공포정치로 지명되는 6공정권에서의 악법 철폐는 제도정권의 타당과 청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민주정부를 수립을 위한 국민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부리, 폭력과 국민에 대한 공포정치로 지명되는 6공정권에서의 악법 철폐는 제도정권의 타당과 청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민주정부를 수립을 위한 국민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입니. 구내식당을 학교직원들이 이용하거나, 입학자들이 식사를 할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주인은 우리를 일반 동학인 입니. 따라서 학교와 입학자들 간의 계약으로 우리들이 식당을 계약해서 만들었단 말이니 학교측의 불성실, 입학자들의 희유책(일시적으로 유식적인 것이)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1만 동학인의 힘으로 식당정화를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법, 우리의 자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1만동학인 여러분! 이제는 좋은 밥을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김인성 (블로그대 불교학과)

월남파병의 재현 폐만파병

현정권, 대미예속성의 극명한 증거

폐만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친우회에서는 지난해 18일 6.25 전쟁, 월남파병 등으로 인한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절절한 파병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는 등 파병반대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신년선언에서 전투병력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군외로

사하고 단장을 제외한 수송단장병들은 모두 미공군 제1360수송지원단에 소속된다고 한다. 즉, 현 정권은 한국내의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유혹하면서 파병과 분담금지원을 계속하여 미국의 요구에 충실히 응하고 있다.

지금의 파병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군으로서가 아니라 아랍인족과의 전쟁이라는 세계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허울 좋은 낱두리에 불과하다. 미국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에 유엔을 달고 종속국들에게 파병과 분담금지원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만 파병 공군수송단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

일린글터

140학점 따고도 졸업못한 '속사정' 학교측 제도적 개선과 학우들 관심 필요

1월초 공과대 4학년 한 학우가 중앙교과위로 찾아왔다. 사연인즉, 11월에 회사에 취직하여 연수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 "91년 2월에 졸업이 안된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부랴부랴 성적증명서를 떼어보고 문외한 결과 총 이수한 150학점 중에서 타 계열 교양선택 3학점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전 11월에는 사회대 두명의 학우가 동일명칭의 교양전공과목을 이수한 이유로 140학점에 미달되어 졸업할 수 없게 되었다. 또 그냥 넘길수 없는 한 사례로 사범대 모학과와 교과과정을 거쳐 동일명칭이기에 동일명칭을 한게 이상 중박이수하여 집단적으로 졸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문제가 심각해질 즈음 학교당국은 학생들과의 면담과, 학장이 두

강좌의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두개의 동일명칭과 이수를 학생을 제외하고 졸업은 시키는 아랑(?)을 베풀었다.

이처럼 지난 89년부터 교과과정 체계 및 이수형태가 학기마다 바뀌어 공백기를 둔 공백기 생활 뿐 아니라 계속 학교를 다니는 학우들까지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의 분야별 이수 에 큰 혼란을 받고 있으며 졸업에 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91년도 졸업대상자중 217명의 학우가 학점미달이나 교과과정 이수체계를 잘 알지 못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미졸업자의 20%는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이지만 타계열 교양선택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우, 영법,공필이수를 빠뜨린 학우, 동일명칭을 중복이수한

학우들이다. 이러한 졸업불가능 요인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학사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행정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는것. 둘째, 4학년 2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에 중간 졸업사정을 하여 미이수학점 및 교과과정분야를 제시하는 것. 셋째, 동일명칭의 강좌명을 정비하는 것. 넷째, 여름방학중 시행되는 계절 학기를 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졸업자 예방은 학교당국의 제도적 마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교 학생이면 누구나 교과과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한 일이다.

(중앙교과과정 학생위원회)



목욕골

- 37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족동국대 반전반혁 이과대학학생회
- 원민이의 입대환송식과 광원선배의 생일잔치를 합니다 모일시 3월1일에. 자세한 내용(장소, 참가비)은 이과대로 문의바랍니다.
- 동학의 수석대학인 불교대학에 입학한 91학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400불대인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성실한 학교생활과 바른 생각으로 멋진 대학생활이 되십시오. -불교대 편집부장
- 모든일만 학우가 사랑하는 형이의 생일(2월17일)을 나만의 축하로 대신하며 건강해라. -your love?
- 김승진, 김후근, 채병용, 유병철, 박기진에게 3월이 새해이던 학생시절이 끝나고 1월이 새해가 되는 사회인의 출발점에 선 졸업생 여러분께 하고자 하는 모든일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계산고시학사 최성호
- 영철이형(인철90)의 생일(지난 19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유 많이먹고 무럭무럭 자라세요. -영철이형을 아는 이가

동학! 광장

- 지난달에 치뤘던 사범대교시(?)인 교원공개입용고시1차에 합격하신 수교과의 최경애, 안정숙, 이현우, 현은자 모두 무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2차, 3차도 모두 성공하시세요. -수교과 송호진
- 동학제정생 여러분! 시국관련 또는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제적된 학우들중에 복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복교투쟁을 전개합니다. -제23대 총학생회 인권사업부
- 동일경제학과 91새내기들 입학 축하해요. 딸들리리! 딸을 알리리! 마침내 이 땅과 하나되리리! 농민해방의 한 길로 손 맞잡고 치달라 갑시다. -농일경제학과 89일동
- 사랑스런 누나, 형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인아주고픈 문장이 누나, 추워졌고 풍수영이 승원이 형, 슬타배기를 모면기 위해 애쓰는 성준이 형, 졸업은 못해도 졸업장은 위조하는 재원이형, 2주일동안 공포에 떨었던 한미더 '전화왔어!'의 주인공 정현이 누나. -모두의 졸업을 기뻐하며 동생 철우 드림니다
- 원민이형이 군대별 간대요 글썽//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온 동학을 환하게 밝추주던 전운원(정보관리 86)선배님께서 오는 3월5일 국가고시(신체검사 1등)에 당당히 합격하시어 입대를 하신답니다. 형을 보내는 슬픈 이 여우배는 드림달음이 딱 하나밖에 없네요. '3년동안 기다릴게요. 몸 건강하게만 돌아오세요' -모 여우배 올림
- 대학 4년동안 온 동학을 헤집고 돌아다니셨던 인경아언니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께 부끄러워 않은 후배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애국적 사회진출을 위해 오늘도 새벽별을 보실 언니께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루배 올림
- 일문과 당나귀입니다. 겨울방중에 다녀왔던 중국연수의 기억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임민진선생님들과 학우여러분의 힘찬 새하기를 기원합니다. -김남현 올림

은방골

-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뜻있는 동계방학을 보내셨는지요. 이번 91년에는 모든 원하시는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동문회에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고등학교·경남여고 합동동문회
- 삼현아 웃고 즐기고, 개기가 보니 네 생일이 지나갔구나. 생일선물은 없고 복이나 무지귀기 받아라. 생일 축하한다. -산적
- 기철이형 형은 지금 차디찬 고도소에서 우리들을 생각하고 계시겠죠. 형! 언제나 형의 곁에는 저희들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형의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합니다. -세종고 90후배 올림
- 홍성이형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언제나 어머니와 같은 품성으로 저희들을 돌봐 주신던 홍성이형이 졸업을 합니다. '저희사랑' 동지여러분! 형과 투쟁의 현장에서 만나기위해 노력하십시오. -민족동국대연구회 '저희사랑'의 한 회원

학술기회

수서비리 폐만집전 온국민이 분노한다

이사장 致辭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
본인은 먼저 설립자를 대표하여 우리 동국학원에서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물려 익히고 이를 함양하여 사회의 새 역군으로 나서는 여러분들의 정도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주신 내외귀빈여러분과, 그동안 숭한 회생을 무릅쓰고 정성을 기울이신 학부모님, 그리고 성실히 교육하고 지도해주신 교수직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이 중요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어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이 삼보의 언덕에 오르내리며 편학에 열중했던 지난 4년간은 민주화라는 우리 현대사의 숨겨진 소용돌이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시련을 감내해야만 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발휘하여 기쁨으로 동국정신을 일깨우며 불의에 항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만민의 복속에 다짐하는 정열을 쏟아냈는 의연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배움터에서 무엇보다 불교의 지혜와 자비 즉 동국정신을 가슴깊이 새기며 체득해 왔습니다. 지혜는 맑고 바른 마음의 자각이며, 자비는 넓고 깊은 사랑



을 베푸는 봉사와 희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처에서 지금 이 지혜와 자비를 지닌 사람들이 현존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와 세계를 지배하던 기존의 가치관들이 그 기초로부터 흔들리고 있고, 그로인해 인류는 지금 미증유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록 두렵던 철의장막, 핵의 장막이 그들 스스로에 의해 걷히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직도 걸프전쟁의 안개가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구시대의 잔재인 남북분단과 갈등의 역사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황금만능 풍조와 함께 부정부패와 비리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과거 어느때보다 도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이를

졸업생에게

이고, 또 무엇이 펼쳐버려야 할 구슬덩이를 구체적으로 가려내고 실천해내야 했습니다.

친지에 따스한 불기운이 스며들면 재야무리 무겁고 깊은 열정과 눈멀지라도 자연스레 녹고 맙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사회를 올바르게 잡아줄 새로운 불기운이며, 또 아름답게 가갈 소중한 연꽃들입니다.

부디 우리나라 지식의 대명사로서 이웃끼리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적 대립이나 여러 모순을 극복하며, 나아가 동족끼리 화합을 이루어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하는데 그 사명을 다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
모든 존재는 내외귀빈을 오시고 일찍이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진리를 究明하고 자수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을 완성하며 민족과 국가에 기여하는 빛나는 업적을 무수히 쌓아올린 우리 동국대학교의 90학년도 졸업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본인은 무엇보다 먼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각각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그리고 수료증서를 수여받은 여러분들의 영광에 대하여 동료 교직원 그리고 전 동국가족과 함께 뜨거운 축하의 뜻을 보냅니다. 아울러 졸업생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몸소 양념으로 이끈 수많은 불꽃을 다 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희망에 가득 찬 졸업생 여러분! /
오늘의 졸업생 여러분들이 우리 캠퍼스에 머물러 있던 지난 수년간은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학내외적으로 매우 심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의 영광을 차지한 승리자들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내외적세도 매우 어렵고 혼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조금도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혼란은 용기없는 자에게는 고난과

총장 式辭



좌절의 압축이 되지만 스스로의 능력과 뜻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발전과 창조 그리고 자기성취의 계기가 되기에 바입니다. 자각과 위기는 공격과 위기의 신호이기도 하

히 마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숨은 지혜와 유감없이 발휘할 때가 온 것입니다.

부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신천지인 사회에 나가서서 이 거룩한 삼보의 언덕위에서 쌓은 불멸의 활력을 마음껏 넓게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
여러분의 성공이 없는 곳에서 동국의 영광이 있을 수 없고 동국의 영광이 없는곳에 여러분의 성공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비록 동국을 떠나지만 영원한 동국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일동이 바로 모교와 직결되는 동시에 여러분의 선후배

다. 이러한 새 시대에 새 각오로써 미련과 주저에 사로잡혀 망설이지 말고 용맹정진, 실력 발휘를 통해 몇몇만 동국인으로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 사명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든 모교를 떠나는 동국인 여러분! /
여러분들은 동국을 떠나지만 영원한 동국가족으로써 부처님의 자비와 布施의 정신을 소생시키고 和靜정신에 입각하여 무질서를 청산하며 오로지 모교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단결하고 합심하여 相互信賴속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자비의 봉사자되라 조국통일 대들보 역할해야

다시말해 국가와 인류는 이 久遠의 동국정신을 구현할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바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나갈 주인공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설계해 나갈 미래는 불확실성속에 대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래까지 개인과 사회, 국가

自利利他 정신 당당히 펼쳐라 몇몇만 동국인의 위상 정립을

지나 또한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우리 캠퍼스에 머물러 있는 동안 '변화'의 혼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 즉 원대한 이상과 깊은 지식 그리고 사자와 같은 용기를 한 몸에 지니고 능히 그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전인적 인격형성을 위한 수련을 무사

이렇게해서 우리 동국대학교가 세계속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필요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가 함께하여 날로 보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바이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경제속에서 우리 민족도 생존하여야 하겠습니

동국대학교 총장서리 申 國 柱

서 평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 회간행 '대학자주화 백서'

대학의 현주소 진단

대학자주화 운동방향 답아 교육악법 개정안 깊이 다뤄

민주교수의 수만도 20명이 넘는다는.

이번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에서 펴낸 '대학자주화백서'는 대학의 이러한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백서는 오늘날 우리 현대 대학의 국가권력과 사립재단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대학주재인'인 교수, 학생, 직원의 권익이 심대한 위기를 맞고 있고 학자주 운동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작년 가을 학기에 덕성여대에서 성낙돈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큰 사회화론이 되었는데 현재 부당하게 대학을 떠나게 된

할 수 있다.

'대학자주화백서'는 대학자주화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글들과 대학별 교수단위의 현황, 교육관계법의 문제점과 그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글과 법 개정안이 실려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록으로 '대학자주화 운동의 방향'에 실린 글들은 대학자주화 운동의 당위성, 대학 구성원의 위상, 교수의 신분보장, 총(학)장 선출문제, 교수협의의 의의, 대학재정, 교육과정정신 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제2부는 등의 대, 대전실전, 경기대, 상지대,

'91 단체협약안 쟁점

1. 노조 전임자 문제

87년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거대한 물결속에서 많은 노조들은 근로조건 개선, 노동조합활동권의 보장 등 노조에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87, 88년 민주노조의 공세속에서 밀린 자본가들은 공안정국을 발미로한 정부의 노동자 탄압에 편승하여 경단협을 결성하고 민주노조의 뿌리를 뺏기위해 기존에 합의한 단체협약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실제로 자본가들은 90년 상반기 단체협약 투쟁에서 경단협 "단체협약 체결 지침"을 신주단지 모시듯 들고 노조와 노조에 단체협약 개약을 요구하고 있거나, 교섭을 해대고 있어 전노협소수 1백500개 사업장의 단체협약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단협의 주요쟁점으로 되고 있는 내용중 전임자축소 및 전임자 임금미지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노동조합 활동은 조직·교육·선전·홍보·문화 등 다양한 활동

노조전임자 축소... '쟁의불씨' 임금미지급도 주요내용

그러나 정부와 자본가는 노조전임자문제를 쟁의 행위가 될 수 없게 하고 있다. 전임자 급여는 노조에서 지급한다는 경단협 지침을 들고나와 전임자 수를 줄이고 노조활동지체를 축소하고자 하고 있으며 더구나 전임자 임금지급을 노동조합에 부담시켜 취약한 노조재정을 더욱 압박하여 결국 전임자를 잃을 수도 없다고 하고 있다.

서울 구로공단에 위치한 KDK노조를 보더라도 전임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으며, 영창실업의 경우는 전임자 3명을 전부 없애려는 자본가의 요구에 맞서 끈질긴 교섭 끝에 2명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하철노조의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무단결단 처리하고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 전임자의 불인정과 전임자 미지급을 기업법 노조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조운동에서 사실상 노조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노조조합운동에 명백한 탄압이다.

노조전임자수를 정하는 문제는 노동조합의 입문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며 전임자 임금문제는 조합비가 급여의 2%미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성범(서노협 선전부장)

수강신청 확인 - 정정

- '9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기 간: '91. 3. 11(월)~3. 12(수)
 2. 장 소: 소속대학 교학과, 학과
 3. 대 상: 전 교생(이전학기 복학, 재입학생은 위기간에 수강신청)
 4. 유의사항:
 - 1) 수강신청의 임의변경(취소, 추가)을 할 수 없음. 단, 전산처리 오류나, 분반, 폐강으로 인한 강좌 변경등의 경우만 정정가능함.
 - 2)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신입생 특별시험 실시

- 1991학년도 신입생에게 조기졸업 및 초과학점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시험을 실시하니 희망학생은 소정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1. 시험과목: 3과목
 - 이수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 점 비 고
 - 공통필수 21-101 국어강독 및 작문 2
 - 공통필수 22-103 영 어 1 2
 - 영역필수 41-121 일반수학 1 3
 2. 응시자격 및 과목
 - 가. 자 격: '91학년도 신입생('81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서 '91학년도 1학년 복학생 포함)
 - 나. 과 목: 3과목중 2과목까지
 3. 시험일시: '91. 3. 9(토) 09:00부터 *과목별 고사시간은 추후 확정 공고함. ('91. 3. 8(금) 14:00환)
 4. 전형료: 과목당 15,000원 (경리과 수납)
 5.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기 간: '91. 3. 5(화)~3. 7(목)
 - 나. 장 소: 교무부 및 이부대학 교학과
 6. 합격자 발표: '91. 3. 12(화)예정.

1991년 2월 일 교 무 처 장

일반 휴학원 접수

- '91학년도 제1학기 일반휴학원을 다음과 같이 접수함.
1. 접수기간: '91. 2. 25(월)~3. 8(금)
 2. 장 소: 학적과(지도교수, 해당대학 교학과, 도서관 열람과 경우)
 3. 대 상 자: '91년 2월 현재 재학생으로서 가사 또는 개인 사정상 휴학을 희망하는 자
 4. 제출서류: 일반 휴학자(소정양식) - 학적과에서 교부함
 5. 유의사항: 급학기부터 한 학기 휴학을 허용함.

1학기 복학업무 실시

- '91학년도 제1학기 복학업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신청기간: '91. 2. 25(월)~2. 28(목)
 2. 접 수 처: 학적과
 3. 구비서류
 - 가. 일반복학자: 복학원서 1부
 - 나. 군복학자: 복학원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다. 전역예정자: 복학원서, 전역예정증명서 각 1부
 4. 자 격: 학사내규 제43조의 의거,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군인영휴학자로서 개학일로부터 30일('91. 3. 31)이내에 전역할 자. 다만 전역 예정일까지 전역하지 못한 자는 사유에 관계 없이 복학이 취소된다.
 5. 유의사항: 급 학기부터 한 학기 휴학을 허용함에 따라 반드시 복학이 이어지는 학기에 복학할 필요가 없다.

1991년 2월 일 교 무 처 장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 1991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발하니 희망자는 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
1. 대상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2학년 재학생
 2. 신청기간: '91. 3. 11(월)~3. 13(수)
 3. 제출서류: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1부
 4. 선발인원: 입학정원의 30% 이내
 5. 선발기준: 성적, 인성, 적성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해당학과

교육실습신청서 접수

- 1991학년도 교육실습 신청서(추가) 및 실습비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1. 실습기간: '91. 4. 1(월)~4. 27(토) 4주간
 2. 실습대상자: 4학년 재학생으로서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지방학교 실습자 및 연구지도교 실습희망자는 필히 동의를 제출할 것)
 3. 접수기간: '91. 3. 4(월)~3. 6(수)
 4. 실습비: 가. 사범대학생: 2,900원
 - 나. 교직과정 이수자: 22,900원
 5. 접수처: 사범대학 교학과 및 이부대학 교학과

1991년 2월 일 사 범 대 학 장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

1. 신고대상: 예비군 신분의 학생 및 교직원
 - 가) '91년도 복(입)학하는 자(대학원생 포함)
 - 나) 복수전공자 또는 학점미달 졸업생(가. 다) '91.3.1부로 신규입용 또는 연임되는 조교신분의 교직원
 - 라) 학생조교는 학생으로 신고 할 것.
 - 마) '91년 2월 본교 학부 졸업 후 대학원 진학자
 - 바) '91년 2월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및 수료 후 박사과정 진학자, 단 대학원의 연구 및 관리 과정 제외
2. 신고기간: '91.2.27(수)~3.7(목) 17:00까지(등록기간내 필히 신고할 것). 단, 추가등록자는 등록 후 즉시
3. 신고장소: 비상계획과(예회관 1층) - 예비군 연대본부
4. 신고시 본인 지참사항:
 - 가) '91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임용증)사본 또는 복학허가서 1부
 - 나) 증명사진 1매
 - 다) 도 장
 - 라)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신고시 인적사항 참고 *병역수첩 또는 전역증서(참고용)
5. 신고양식: 비상계획과 비치
6. 위 대상 학생은 신고시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받아, 현재 예비군 편성지(주민등록주소지 동회 또는 취업직장 예비군 중대)에 2월 이내에 제출할 것.
7. 등록을 필한 예비역학생 모두는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안해 발생하는 불이익(제관후 발급부과)은 해결방안이 없으므로 기간내에 필히 신고할 것. *'91년도(당해년도) 전역자라 하더라도 신고 미필자는 고발 조치됩니다.

1991년 2월 일 동국대학교 예비군연대장

사회보도

수서비리 폐만참전 온국민이 분노한다

또다시 발생한 군대내 의문사

○... 또다시 군대내에서 의문사가 발생했다. ...○
 ○... 90년도 외대(용인캠퍼스)총학 기획2부장을 ...○
 ○... 지냈던 남현진군이 우리앞에 주검으로 그...○
 ○...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열사는 지난해 11...○
 ○... 월 26일 논산 훈련소에 입소, 1월 24일 자대...○
 ○... 에 전입하였다. 2월 3일 오전 11시 45분 약...○
 ○... 간의 먹물것을 사들고 산속 쓰레기 소각장...○
 ○... 으로 들어간후 오후 2시 50분경 소나무에 목...○
 ○... 을 맨채로 발견된 것이다. 전국대학신문기...○
 ○... 자 연합회는 즉각 공동기자단을 구성, 의...○
 ○... 문사 진상규명 및 군민주화 위한 취재활동...○
 ○... 에 나섰다. 이에 우리신문에서는 공동기자...○
 ○... 단의 도움으로 용성총련 의장 이국형(외대...○
 ○... 철학88)씨와의 회견문을 실는다. ...○



남군이 목을 맨다는 소나무, 남군의 키는 175cm 소나무의 높이는 2m뿐이다. 더구나 목을 맨 가지의 굵기는 직경 15cm밖에 되지 않았고, 나무껍질이 벗겨진 흔적을 볼수가 없다.

학생운동탄압 날로 살인화

'경찰폭력' 쟁점되는 경북대를 찾아

최근 들어서 공권력의 과잉 사용이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다. 본교도 방중에 17명의 학우가 불법 연행되었는가 하면 다른 학교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이처럼 과잉진압, 불법 연행은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흔의 발생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미 현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어 정권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을 선택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있었던 영남대 경찰난입난동사건과 경북대주변 총기난사사건은 이 점을 잘 설명해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지난 18일 영남대를 방문했을 때 매우 급박한 분위기를 접하니 놀라움에 이르렀다. 곳곳에 공권력의 만행행위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여져서 하던 학내에는 학생회에서 구성된 규율대원들도 간혹 눈에 띄었다. 날이 저물무렵에 왔을 탓인지 본지가 총학생회실에 도착했을 때 집행부원은 불신하는 눈빛으로 나를 대했고, 타지방대 학사 왔다는 신분을 밝히자 친절하게 반겨 주었다. 영남대 사건경위를 알고싶다는 기자의 질문에 당시 불법연행(집시법 위반)된 현직 총학생회장(총부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8시였어요. 등부대표사였던 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협상이 결렬되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집행부원과 회의중이었습니..."



◇ 지난 11일 경북대 정복수 학생은 경찰이 쓴 M16 소탄에 다리가 관통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시위 학생에 M16발사까지

영남대 경찰난입난동사건의 충격이 채가기도 전인 일주일후 경북대생의 한학우가 불법연행 항의시위에 총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 경위를 잠시 살펴보면 경북대 학생들은 지난 11일 오후 4시 한 학생들의 불법연행규탄 시위로중 경찰이 공포탄을 발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흥분한 학생들과의 격렬한 시위끝에 경찰이 쓴 살탄이 정복수(자연대 90)군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은 아저머니 없는 일이 발생한 한마디로 과잉 공권력 사건의 경찰이 닳고 파괴..."

이에 대해 대구시경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그 어느 때를 불구하고 응징될 것이며 총기사용은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방위"라고 말했고 후에 신일 지안본부장은 "앞으로 폭력학생운동에 대해 범죄조직과 형법을 적용할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과잉 공권력 사용은 정당화, 합리화 시키기에 급급했다.

대구지역대학생협의회는 이를 계기로 새학기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공동집회를 갖는등 이에 반박하고 나서고 있어 학생들의 규탄시위는 점차 폭넓게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은 커녕 오히려 감시, 조사당하고 있는 정복수군을 본지가 만나보았을 당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상처가 처음보다 다소 호전되어 수개월후엔 걸을 수 있다고 말하는 정군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처음엔 총소리에 겁에 질려 나 자신이 총상을 입은줄도 몰랐어요. 후에 알았죠. 그렇지만 그 장소엔 학생들 외에도 구경하는 시민이 많았는데 그곳을 향해 살탄이 발사되었다는 점이 이해가 안가요"라며 "당시 경찰들의 대응이 가히 살인적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간지 등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 '저희들을 폭력범으로 동일시 취급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건될 수가 없어요. 소수의 개별들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회생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고 그러한 잘못된 현실을 알고 투쟁하는 것만 폭력인가?'라며 흥분한 표정으로 대담할때 폭력정권의 민중들에 대한 횡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민중은 깨어나게 됨을 실감하게 되었다. (永)

'프락치 강요' 의혹 커

운동전력 비취 모종의 압력 추측 죽음 물고간 구조모순 밝혀내야

-이번에 남현진열사 사인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때 느꼈던 생각이라던지 소감이 있다면...

=91년도 학생회 사임을 준비, 계획하고 있던중에 어느날 갑자기 청진력력 같은 현진이 죽음에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현진이 '죽음'이 현실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의문사 같은 낱말들이 공허하게 맴돌 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자살'이라고 군당국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 그 각본 역시 거의 완벽한데 이러한 군당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 '자살'이라고 불만한 물적 증거가 없고 우리가 심층으로만 단정하기 때문에 군측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자신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진이가 죽음에 있어 '자살'이나 '타살'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 배후의 본질이 중요하겠죠.

-1월15일~24일간 자대배치받기전 약 열흘간의 기간이 공백상태에 있는데 이 기간동안 남현진 열사에 대해 보안사 내지 군당국의 '프락치'강요라던지 모종의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 걸로 짐작이 가는데...

= 현진이가 훈련소를 폐소하고 자대배치받기전 받은 주검기 번호가 '08'입니다. 이 번호는 군사회에서 정보,보안 계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진이가 이 번호를 받은것만 보더라도 당국의 '프락치'강요가 있었음은 충분히 예상할수 있죠. 그리고 현진이의 전력이 학생회 간부 라는것과 학생운동을 열성적으로 했던 것으로 미루어 군당국의 집요한 압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군의문사의 50~60%가 학생운동을 했거나 그에 관련된 사람들인데 학운단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사건을 보신다면, =92.93년 장기집권을 위한

진조전으로서 민권세력에 대한 광복한 탄압이 표출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조직사건들을 통해 학생운동을 왜해하려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한 하사관이 갖들어온 신병인 현진에게 '우리나라의 풍경을 가로막고 있는 적이 누구냐고 질문했던 걸로 미루어 보아 이미 이전에 현진이가 학생운동을 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사실들이 학운단압의 증거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군정당과 내지 군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이 있다면, =현진이의 '죽음'의 배후조장자를 추측하는 것이겠죠. 그들을 이방에서 몰아내지 않는 한 군민주화라든지 그의 이 사회의 어떠한 민주화도 기대할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청년학생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또 앞으로의 투쟁방향

은, =가장 먼저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겠고. 수차 강조하지만 '자살'이나 '타살'이나 하는 죽음의 형태에 매몰된 투쟁이 아닌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본질적인 원인이 해명되어야 합니다. 2월25일 용성총련장모 장제식을 치르던 이후 지속적인 선전전과 홍보를 할 계획이며 남현진 열사 추모 사업과 및 추모기념비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저희 청년 학생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군대에서 발생한 또하나의 의문사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민권세력 및 학운단이라는 걸 각인해졌으면 합니다.

(남현진열사 군의문사 진상규명 및 군민주화를 위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공동기자단)

동막로

남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이름난 경기도 양평.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추운날씨 속에서 동막의 새 주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찬바람을 가르고 있다.

이번 신입생 예비학교는 처음으로 총학생회가 주최하여 마련한 것으로 신입생과 재학생 2천여명이 참가하여 대학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영입하는 바쁜 가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큰 자리였다.

일정별로 이어지는 선배들의 인사말과 학내 문화현황들의 공연을 보는 새내기들의 표정은 다소 혼란스러워 보였다.

호화스러운 속삭이결과 응

새내기 잔치?

원단의 화려한 울동을 보여 환호하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 동연이나 이리랑의 공연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데는 얼굴도 있었다.

아직은 불에 맺힌 홍조를 띠고 선망의 눈초리로 선배들을 바라보는 신입생들에게

이런 예비학교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현상과의 자기와의 만남같은 싸움에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편, 행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총학생회와 각 단대가 긴밀하고 적극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너무 많은 인원이 참가한 관계로 식사등에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고, 방배정이 잘 안되어 신입생들이 밖에서 먹고 있자 사범대 모 '재학생'이 울면서 재학생들은 눈물겨운 호숫한 일화이다.

마지막 밤 열릴 예정이던 모닥제행사 조차도 몇개 단대의 불참으로 전체적인 진행은 무산되고 참석한 몇개 단대의 눈으로 끝나버렸다.

이런 폐해때문에 개별적으로 예비학교를 개최해야한다는 일부 의견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함께라는 집단적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참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했을 것이다.

대학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의 눈에 이러한 선배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왜 모두 함께 하지 않는지 참 이상해요. 선배님들간에 별로 친한 것 같지도 않구요"라 말하는 총총한 91학부의 눈빛이 가슴에 박혀온다. (김영란 기자)

외국어교육, 최고의 자부심을 펼친다.

파고다 외국어학원.

절호의 찬스 - 입사, 승진, 진학, 유학, 해외지사 파견... 그러나 단 한가지, 외국어 실력 때문에 성공의 문턱에서 번번히 좌절되는 안타까움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외국어 교육은 이러한 학습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교수들이 함께 인식하지 않는 한 만족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파고다 외국어학원」의 교육 철학이기도 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하루 하루 성취감을 주자" "파고다 외국어학원"이 내걸고 있는 이러한 모토는 강의 시간 시간마다 진지하게 반영되고,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외국어 실력으로 인한 재미와 학습의욕은 상승작용을 일으켜 학습효율을 배가 시켜줍니다.

적극적인 사고, 정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시대 最高의 外國語學院 - 「파고다」 외국어 교육, 최고의 자부심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의 대열로 오십시오.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파고다외국어학원

본원: 서울 중로구 중로2가 56의 6호 274-4000, 274-6821~2
 분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교 남단 끝 515-4020, 516-4020~2

보도내용

수서비리 폐만참전 온국민이 분노한다

등록금협상 빨리 매듭지어야

재단 참여...재원 확충 교두보 일방적 고지서 발부는 안할듯

91학년도 등록금 액정을 둘러싸고 학교당국과 학생회간의 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올해도 등록금 협상이 동학을 휘둘러갈 기세이다.

학교당국에서는 현재 20% 인상과 25%인상에 관한 입장을 보이며 학생회가 이의 내용에 협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생회는 학교당국의 인상근거가 순전히 학생등록금만 가지고 91년도 예산을

정확히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학생회의 자체조사 결과 올해 등록금 의존율은 지난해 보다 6.2% 상승한 88%선에 이르렀다며 수익자산의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3대 총학생회는 지난22일 등록금채정위원회(위원장=송진태)를 구성하고, 지난 6일부터 그간 4차례에 걸친 등록금 협상에서 재단대표가 실질협상 태

이론에 나와줄 것을 요구했고 학교측의 긍정적 입장을 받아야 논의도 등록금 협상 전기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있었던 제4차 등록금 협상에서 학생대표는 △교육용·수익용 재단 총자산 공개 △수익자산 내역 공개 △전입금 내역공개 등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학교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재단-학교당국-학생 3자간의 논의의 틀을 정

리화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20일 본교 이사장실에서 열린 재단이사회에서 정우식 총학생회장등 학생대표들은 재단이사회의 3차례 면담을 갖고, 재단대표의 등록금협상 참여를 약속받는데 등록금협상에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 또한 학생회는 정우식 총학생회장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학교측에 요구, 그렇게 하겠다는 당국의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재부>

교수채용 학생참여 제도 합의 농생과, 교수 단독 동의서 제출로 파문

인내파멸에 의한 교수채용방지와 민주교수영입을 위한 학생대표와 학교당국 공동합의사항이 지난달 4일 이뤄짐으로써 교수채용에 교수·학생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학교당국과 합의된 내용은 △모든 과정의 공개원칙 △학과에 권한위임과 합의준중 △

공개강의 실시비율은 20~30% 내에서 학과합의로 결정 △후보 1인 추천원칙등이 주요사항으로 이에 근거해 인철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역사교과과, 농생과, 체과과 등에서 공개강의, 서류심사가 진행됐다.

인도철학과는 신규교수채용에 金煥泰(불교학) 불대학장이

파문의문을 파기하고 학정주관하에 제심사를 함으로써 이에 인철과 학생들이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농생과 신규교수채용문제는 지난 6일 교수단독동의서가 교무처에 제출됨으로써 학생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는데 경기가 화될 조짐이다.

역사교과와 학생회는 동양사신규교수채용에 있어 지난달 31일 서류심사와 공개강의를 거쳐 교수-학생 합의를 올렸다.

체육교육과 학생회는 신규교수채용에 있어 유순호전임학생회장이 교수동의서에 일방적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박종혁 신임학생회장과 재교과 학생들이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체육교육과 학생회는 신규교수채용에 있어 유순호전임학생회장이 교수동의서에 일방적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박종혁 신임학생회장과 재교과 학생들이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전기 2백17명 졸업못해 학점 취득에 정확한 홍보절실

90학년도 전기졸업자중 졸업취득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미졸업자가 10%인 2백17명으로 나타나 교과과정 및 학적관리 등에 큰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90학년도 학위유치에 있어서는 학사 2천2백17명이 졸업하는 반면, 졸업인정 취득학점 1백40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전체 미졸업자의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동일과목 취득학점 불인정등의 교과과정의 문제, 잦은 커리큘럼 변화, 전산화되지 않은 학적관리로 인해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도 미졸업자중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무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적응지도 시간에 수강신청방법 및 졸업인정 취득학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복잡한 학점기준에 대한 수강신청설명서를 신입생에 한하여 1회만 실시하고 수업강의계획표에 나타난 수강신청 주의사항 역시 간략한 부분만 설명돼 있어 2학년 이상의 수강신청에 적잖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과정의 이러한 문제와 함께 쉽게 학점을 이수하려는 편의주의도 학적 미취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강신청시 성실한 태도가 요구된다.

김직태-손창구교수 퇴임 이울래 비상계획 과장도

金煥泰(화학공학)교수와 孫昌求(자연과학대 조정학)교수가 오는 28일자로 정년퇴임하게 된다.

金교수는 59년 4월부터 본교에 재직, 과학관장, 공과대학장,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등을 역임하며, 32년동안 재직했고, 孫교수는 지난 76년 2월에 본

교에 부임해 자연과학대학장, 경주교무부장, 도서관장, 생활조정연구소장을 역임하여 15년 동안 재직했다.

한편, 이울래 비상계획과장도 오는 28일자로 정년퇴직한다. 이과장은 64년 1월 본교에 와 경주관제과장등을 역임하며 26년간 본교에 재직했다.

총학집행부 구성

제23대 총학생회는 총교부등 2개부를 제외한 8개 집행부를 구성, 지난 18일 발표했다.

제23대 총학 집행부를 보면 ▲총무부장=박기봉(정외3) ▲기획부장=정한신(정외3) ▲선전부장=김인나(불교3) ▲연대사업부장=정인호(사학3) ▲사회부장=박원석(사회3) ▲문화부장=서병욱(정보관리3) ▲학술부장=손승일(사학3) ▲체육부장=손승일(체교3) ▲학자부위원장=이우용(무역3) 등이다.

한편 총교부, 편집부는 오는 3월초 결정될 예정이다.

일본수상 방한 반대

각계의 가이후일본수상 방한 반대시위가 있던 지난달10일 본교학생 1백여명은 피계로5가 서울철교교차로에서 50여분간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첫걸음' 양평 리조빌에서 사상 처음으로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선 이튿날 모교에 대, 신입생·재학생이 함께 어울려 공동생활체 의식을 기르며 첫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신입생 예비학교 2천여명 참가 노래극 시낭송등 인식전환 행사 펼쳐져

서울캠퍼스 91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신입생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당국 및 총학생회 주최로 지난20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

학교당국에서 주최하는 신입생 적응지도는 지난20일 오전 10시 동극관에서 단대별 수강신청안내, 교수소개 등이 있었으며, 오후 1시부터는 체육관에서 신입생 전환을 대상으로 기숙사안내, 학교기념품등 학교생활안내가 있었다.

총학주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교측 적응지도가 끝난 뒤 양평 프라자 리조빌로 장소를 옮겨 진행되었으나 폭설로 인해 행사가 차질을 빚기도 했다. 21일 열린 총학생회에서는 단대별 소개와 노래, 동극문화의 노래극, 시낭송 등으로

신입생 인식전환을 위한 문화행사가 있었다.

그러나 총학의 집행체제미흡 등으로 2천여명의 학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일부 행사일정이 취소되거나 단대행사로 대체되었다.

특히 불교대 신입생 환영회는 발우공양등 사찰예절을 통한 불교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난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경북 점촌시에서 신입생·재학생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재일문화재 조사활동

서울캠퍼스 박물관장 洪潤植(역사교육)교수가 재일 한국문화재 조사차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일본 후쿠오카

경도, 대마도 일대를 다녀왔다.

재일 한국문화재의 종류, 유출경위, 전승방법과 문화적 기능조사 등 목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洪교수는 인천왜관과 일본 강정기대 유출된 불상등 국보급 문화재들이 중국의 것으로 오인되어 오던 것들이 우리의 것임을 확인했다.

올해들어 보충협상 또 결렬 노조 인사적체-직급차별 개선 요구

본교 직원노조는 제3차 보충협상을 지난 13일 학교측과 논의하기로 했으나 학교측 교섭대표위원인 申國性총장서리 불참으로 결렬, 총무처장실에서

간담회만을 가졌다.

이번 보충협상의 내용은 △일반직, 기술직의 직급승진제도 개선 △기능직의 등급제도 전환 △기능직 3등급(역직원에 해당)의 인사제도 전환이 주요 사항이다.

이날 간담회는 학교측에서 기획조정실장 趙熙榮교수와 총무처장 林英正교수가, 노조측

에서는 文旭來노조위원장등 5명이 참석했다.

현재 노조측은 일반직·기술직 상위직급의 인사적체와 역직원의 직급 차별 등의 개선을 위해 작년 10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제도 전환에 대한 연구작업을 마친 상태이다.

총동장회 崔載九(국문·52년卒)교문과 鄭在哲(정치학·52년卒)회장이 명예문학박사학위와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지난달 19일 동국대(L101)에서 각각 받았다.

최재구-정재철 동문
명예 박사 학위 받아

총동장회 崔載九(국문·52년卒)교문과 鄭在哲(정치학·52년卒)회장이 명예문학박사학위와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지난달 19일 동국대(L101)에서 각각 받았다.

교육부는 학위수여심사요지에서 崔교문은 12년간 총동장회장으로 해화관건들의 모교 귀속, 개교70주년 장학금 조성, 재학생 취업창구개설, 모교체육중흥, 학술강연회등을 통한 모교발전 기여등의 공로를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鄭회장의 경우, 정부수립 제1차 당시인 지난85년 탄생많은 학원인정법 입법을 백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한편,

민자(?)바이러스

○...동국의 재단이사들이 민자형(?)바이러스에 걸려 있다...

우리의 총장을 선출하는 문제에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려는 모습이 마치 야당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법률남치기통과하는 민자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이것이 그것.

다행히, 긴급동원(?)된 학우들 덕분에 재단이사회의 의도가 저지되기도 했지만

큰(大) 대학(學)

○...등록금이 매년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통과되는 아닌것 같기도.

학교당국에서 제시하는 인상요인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타당한 듯 보이나 다들 발근린 것이라 아무것도 없이 등록금의 사용여부

큰(大) 대학(學)인것 같아 쓸쓸하기만...

상처받은 얼굴마담(?)

○...바람불고 비오는 날이면 주인을 에타게 찾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소리(?)지대가 온방골에 자리잡고 있다

의대부속병원 외부전술공사가 마무리된 현재까지도 내부 설비공사가 진행되지 못해 개원이 미루어지는 가운데, 건물은 식용한 실에 허물어지고 병원의 기능은 온방골의 얼굴마담 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한 의대생은 "학교앞에 우뚝선 얼굴마담 유지하는데 매달 3천만원씩이나 들

이시기억력도 가끔씩 확인해야 한다구요

에 의심이 가고도 남아...

재단 전입금은 계속 재차리 절충만 하는 가운데 물가인상을 핑계로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논리로 학생등록금만 무턱대고 계속 인상을 하는 것 같아 본회전무대자 한 마디 "대학도 돈버는 기업처럼

“24시간 공부하고 24시간 인생을 이야기하고 24시간 집에 취할 수 있는 젊은이”

삼양

한편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삼양이 젊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66년을 이어온 정열과 투지로 식육, 삼육, 기계산업을 건설하게 키워온 삼양— 이제 새롭게 석유화학,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정밀화학 등 미래 첨단산업에 진출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물러설뎌 물러서고 나아가야할때 과감히 나아가는 진정한 용기를 지녔은 삼양—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뜨거운 가슴과 지닌 눈빛의 젊은이들처럼 삼양은 진취적 기상으로 보다 나은 내일,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삼양은 내일을 기다리기보다는 내일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진취적인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느낍니다.

- 주식회사 삼양사
- 삼양석유화학주식회사
- (株)삼양정밀(精製化學)
- 삼양화학주식회사
- 삼양중기주식회사
- 삼양건설주식회사
- 삼일포도당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식회사
- 삼양화학연구소
- 삼양연구소
- 삼양연구소
- 삼양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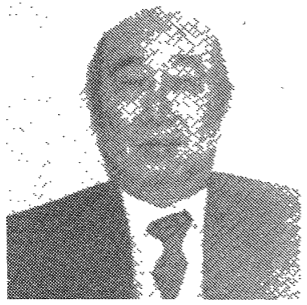
생활문화

수서비리 피만침전 온국민이 분노한다

“떠나는 사람이 뭐 소감이랄 것이 있나요. 단지 올바른 교육자세를 확립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쉬울 뿐이죠”라고 퇴임소감을 밝히는 金眞泰(화공과)교수는 언뜻 보기엔 심술궂고, 고집불통인 외골수 할아버지같았으나 기자에게 차를 권하며 미소짓는 모습에서 인자함과 장정을 느낄 수 있었다.

1959년 전임강사로 본교와 인연을 맺은 후 과학관장, 공과대학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인 金교수는 65세의 나이로 정년퇴임을 맞으면서 지난 30여년을 회고해 주었다.

“4·19의 당시에는 학생들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金교수는 용맹과 기개가 있었던 옛날 학생들과 달리 요즘 학생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자라 그런지 기백이 부족하다며 “이것이 바로 세대차인 것 같다”는 웃음 섞인 말과 함께 강요당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신을 책



金眞泰 교수

(공과대 화학공학과)

임지도, 용왕배진하는 동학의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도 덧붙인다.

또한 50년대 이후, 플라스틱 공장이 하나밖에 없던 한국사회가 흔히 말하듯이 율리피를 지를 정도로

한국의 기술발전위해 계속 노력할터 동학인 모두 혼란과 침체되고 일어서길

눈부신 성장을 한것에 비해, 현대 학사회는 교수·학생들이 분열되어 혼란되고, 먼학분위가 조성되지 않은 채 자기만을 고집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을 보인 “대학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한다.

현 동국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행정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金교수는 모든 동학인이 하나로 뭉쳐 행정개선을 이룩하여 교수는 활발히 연구하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혼란과 침체를 벗어나야 할 때라고 소견을 밝힌다.

퇴임후에는 현재 소장으로서 있는 양양의 신도고분자 연구소에서 실험과 연구를 통해 한국의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金교수는 지난 20일 정부가 정년·명예퇴직교원 및 교육경력 23년 이상인 의원면직교원에게 수여하는 국민훈·포장의 일종인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기도 했다.

삶의 신조를 묻는 기자에게 “올바른 일은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이며 학문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주성을 찾아나가는 것”이라고 답을 하는 金교수를 보며 본교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학자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吳)

“노동자 문예운동 해볼만 하죠”

졸업생의 한마디

25일은 동학에서의 4년간 시간들을 마무리하는 졸업식이 거행된다.

본년에는 대학시절을 문예운동, 특히 노동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며 노동자문예운동을 전개해온 국문과 이한상군이 졸업생을 맞아 동학의 문예일꾼들과 앞으로 문예운동에 동참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몇마디 당부하는 글을 실는다.

모쪼록 관심있는 문예일꾼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

(편집자)

졸업생으로서, 구로구청 투쟁에서, 그리고 해고된 광림전자 동지들의 양당문 어금니에서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흐르면서 저는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문예운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예운동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문예대중단체로 성장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임에 동참하고 있었지만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게 해준 것은 동료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비판이었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문예조직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 바로 이 점이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몸으로 배워야 하며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생산현장에서, 아니면 그 주변에서라도 글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함께 노래하고 부대끼며 터져 나오는 눈물과 송글송글리는 땀방울을 서로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노동으로 단련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씩씩대는 눈이 괜히 건강한 노동자들을 또 버려놓는 것은 아닐까하는 두려움과 자책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머리로는 움직여왔던 것을 이제부터 몸으로부터 먼저 배워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다행히 2년여 동안 영동포지에서 많은 것을 배

이 한 상

(문과대 국문과)

퇴임교수와 함께

“대학발전에 늘 동참할터”

많은 인재 키워낸 학과성장이 가장 기뻐 공부와 함께 비판력 겸비한 제자들 되길

지난 20일 정부가 정년·명예퇴직 교원 및 교육경력 23년 이상인 의원면직교원에게 수여하는 국민훈·포장의 일종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고 명예롭게 정년퇴직하는 孫昌求(경주 조정학과)교수를 기리기 위해 많은 퇴임교수의 심정을 대변하듯 유난히도 활짝하고 추운날이었다.

“힘들게 일한 경주조정학과가 이제는 제자들이 조정기술사자격시험에 80% 이상이 합격하는 등 전국대학에서 인정을 받고있어 매우 기쁘다”며 퇴임소감을 대신한다.

서울시립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맡아오다 지난 75년 본교에 신설된 조정학과에 부임한 孫교수는 실험

농장 운영위원, 경주캠퍼스의 교무처장, 자연과학장동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외부적으로는 한국 조정학회에서 회장을 역임했다.

孫교수가 본교에 재직할 15년의 기간은 조정학과에 있어서 매우 힘든 기간이었으며, 이 기간에 동학을 떠나는 동료교수를 바라보면서 좌절할 심정과 좌절을 느낄때 孫교수를 구해준 것은 경주 조정학과를 키워주었다는 신념 하나뿐이었다고 토로한다. 더욱이 경주캠퍼스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며 당시의 심정을 털어놓은 孫교수를 바라보며 인간적인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孫昌求 교수

(자연과학대 조정학과)

요즘도 경주캠퍼스에서 불편한 점을 느끼는 질문에 “경주에서 지냈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비록 힘겨운 시절을 보냈지만 남다른 애정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가르치신 孫교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육의 길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주 교수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도 필요하다”고 나침반의 견해를 말한다.

퇴임후 계획에 대해서는 “동국의 조정학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학교에 남아 연구직업을 하고 싶고, 한국조정학회에서도 고문으로 남게 될 것 같다”라며 학문연구에 힘쓸 계획을 말한다.

또한 현 동국의 어지러운 상황을 보면서 세상 스승과 제자의 도덕관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가장 필요함을 얘기한다.

제자들에게 “인생을 단단하게 준비하는 시기인 대학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하고, 더불어 실천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말을 전하는 孫교수의 모습에서 자상한 할아버지와 같은 훈포함을 느낄 수 있었다. (承)

단신

‘한살림 모임’ 월례강좌
일시: 1991.3.4. 오후 7시
주제: 산업문명의 위기와 오늘의 세계
강사: 김상중교수(서울대 미생물학과)
장소: 한국일보사 13층 강당.
[일] [월]
1066호부터 만화월자가 바뀜을 알립니다.

배우리

▲70년대말 암울한 유신정치 당시 많이 읽혀진 책중에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자의 죽음’이란 책이 있다. 원제가 ‘백장미’인 이 책이 지금도 많이 읽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70년대 당시만 해도 ‘아미쿠’는 당국의 눈을 피해 읽어야 했던 불온서적(?) 중의 하나였다. 당시의 참혹한 탄압과 치열한 저항속에서 나찌지하와 우라나라를 비교해 생각하면서 강한 저항의식을 키워준 책이었던 것이다. ▲‘아미쿠’의 저자이며 대학생이던 임계술은 거짓과 눈가림으로 득인을 통치하던 나찌에 맞서 대학을 중심으로 마비되어 가는 민족적 양심에 ‘진실’을 알려 나간다. 이른바 ‘백장미’라는 신문을 가지고 점점 파시스트들의 광란이 심해질 무렵, 독일양심에 나찌즘의 침략성, 비도덕성을 폭로해 나가던 그의 친구들과 교수님들은 하나를 접혀 형

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시대가 흐른 후 독일국민들은 목숨을 바쳐 평화와 민주를 알리려던 이들의 목숨을 듣고 뒤늦은 참회를 한다. ▲80년 광주의 절절한 의침들이 군사독재를 일으킨 정치군인들에 의해 살륙되어 통일의 꿈과 단념을 넘어진 후 이 땅에도 수많은 ‘백장미’들이 피어났다. 윤상현, 박관현, 김의, 김

모두가 미워하는 자의 죽음

세진, 최은순...이후 헤아릴수 없이 많은 못다된 ‘백장미’들이 의치고자 했던 것은 동족에 의한, 부정확하게는 소수 정치군인들에 의한 민중의 학살과 제국주의 음모들의 ‘진실’이었다. 암울한 시대에 가장 먼저 질척하는 사람이 청년이라던가 ▲요즘은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잊혀지는 것

같다.6공화국대비리란 ‘민방시제’가 끝나기가 무섭게 터져나온 더 큰 비리 ‘수서사건’은 또 언제쯤이면 잊혀질까 고대하는 사람들이 이 종종 언론에 꼬투리를 쥘는 모양이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요즘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그 꼴이다. 그는 뭐가 짙어 나는지 국정조사를 끝내내 거부하고 언론이 형평을 잃었다고 불평한다. 취임사에서 자신의 권위를 바탕으로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포부는 어디로 가고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는지 마는지 계속 망친 것 같다. 대학생들의 화염병사용에 형법을 적용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는 큰소리로치고 있는 모양이다. 진실을 말한 특원의 대학생 임계술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시대의 햇볕이었다. 그러던 대통령 각하하는(?) 부정이 되려는 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자의 죽음이라는 책을 간곡히 권하고 싶다. (淸)

해방이



송태영 (1)



나에게 띄우는 출사표(出師表)

제갈량이 이우 위나라와의 결전을 앞두고 황제인 유신에게 띄운 출사표. 그 글은 결의와 비장함이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읽는 이의 가슴을 서늘게 합니다. 대학 4년을 뒤로 하고 사회 속에서의 자기 실현을 위한 진군을 시작하는 사람들... 캠퍼스에서 얻은 것들에 머물러 만족하지 않고 뭔가 큰 축적을 남기기 위해, 자기에게 띄우는 출사표라도 써야 할까 합니다.

졸업 - 인생에 있어 이 한때의 의미가 너무도 소중한기에.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